

# TDB경기동향조사(전국) -2016년 5월 조사-

2016년 6월 3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http://www.tdb.co.jp/>  
경기동향 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 소비침체와 더불어 연비부정과 쿠마모토 지진이 경기를 하락세로

~ 소비세율 인상 연기의 효과를 기대 ~

(조사대상 2만3,586사, 유효회답 1만588사, 회답율 44.9%, 조사개시 2002년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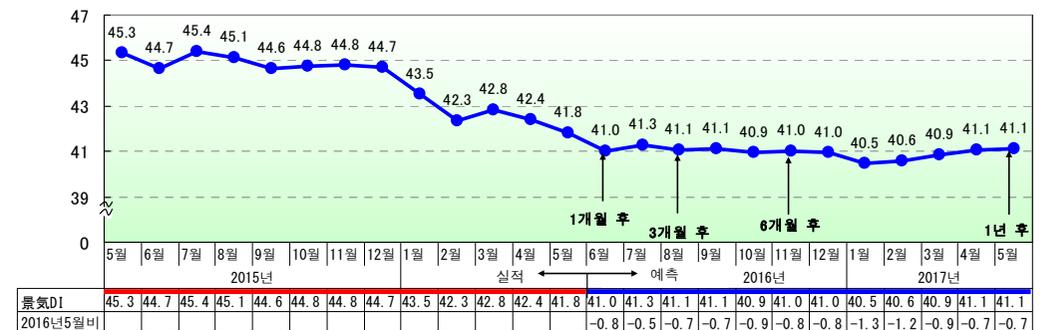
- 5월 경기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41.8가 되어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쿠마모토지진에 의한 조업정지의 영향이 부품조달 등에 나타난 이외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지속되어 개인소비침체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기는 악화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생산·소비의 회복을 위한 호재료가 부족하여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 업계별로는 『금융』 『제조』 『소매』 『서비스』 등 7개 업계가 악화, 『부동산』 등 2개 업계가 개선, 『운수·창고』가 보합세를 보였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소비자의 절약지향, 선별지향이 강해져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한 개인소비관련도 악화가 두드러졌다.
- 『핫카이드』 『키타칸토』 『호쿠리쿠』를 제외한 7개 지역이 악화. 특히 대형자동차제조사의 연비데이터 부정 문제의 영향이 미쳐 전월 대비 4.8포인트 감소한 「오카야마」를 포함한 『츄고쿠』, 지진피해로 인해 동 6.8포인트 감소한 「쿠마모토」를 포함한 『큐슈』에서는 체감경기가 대폭 악화되었다.

### <2016년 5월의 동향 : 악화>

2016년 5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41.8이 되어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5월은 쿠마모토지진으로 인한 조업정지의 영향이 부품조달 등에 나타난 이외에 가계소득의 제자리걸음으로 개인소비관련이 약세로 추이하였다. 또한 마이너스금리의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나 기업의 차입금리는 저하되었지만,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의 욕에는 신중한 태도가 지속되었다. 더욱이 대형자동차제조사에 의한 연비데이터 부정 문제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 공장 등이 위치한 지역이나 거래처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의 연기를 위한 움직임이나 공공공사, 주택착공호수는 증가세가 이어져 호재료가 되었지만 악재료가 많아 대체적으로 정체감이 감돌고 있다. 개인소비침체의 영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쿠마모토 지진이 생산이나 관광관련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경기는 악화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약세로 추이>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세율 인상의 연기나 쿠마모토 지진의 조속한 복구·부흥, 신흥국의 경제동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요인으로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주택투자나 설비투자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외에 일본 방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한 관광소비의 확대는 꾸준한 호재로인 한편, 소비세율 인상의 연기로 막바지 수요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개인소비는, 소비의 기반이 되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상승하였으므로 소비회복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다. 한편 해외요인으로는 중국경제의 부진에 더하여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반하는 신흥국 시장의 불안정화 등이 리스크요인이다. 향후의 경기는 생산·소비의 회복을 위한 호재료가 부족하여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소매』가 3개월 만에 악화, 눈에 띄는 개인소비관련의 하락**

· 『금융』 『제조』 『소매』 『서비스』 등 7개 업계가 악화, 『부동산』 등 2개 업계가 개선, 『운수·창고』가 포함되었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소비자의 절약지향, 선별지향이 강해져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한 개인소비관련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 『금융』 (44.3)··전월 대비 1.2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의하여 대출금리나 자금운용이율저하와 같은 악영향이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는 연금자금의 신규가입이나 기존 계약의 증액을 정지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어 영향이 심각화되고 있다. 「대출은 신장세이지만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신용금고·동 연합회) 등, 실수요에 동반하는 대출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한편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업 등 신용판매업계의 체감 경기는 건조로 추이하였다.

· 『제조』 (40.6)··동 0.7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운송용기계·기구제조」(43.8, 동 3.0포인트 감소)는 쿠마모토지진으로 조업정지의 영향을 받은 것에 더하여 대형자동차제조사에 의한 불상사 등 마이너스요인이 많았다. 더욱이 「기계제조」(44.0, 동 1.3포인트 감소)는 쿠마모토지진으로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은 기업도 다수 보였으며, 신흥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세계적인 건설기계나 산업기계의 수요침체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획량 감소의 영향으로 수산식품이나 밀, 대두 등의 국제가격상승으로 빵·과자, 면류 등이 악화된 「음식료품·사료제조」(43.4, 동 1.2포인트 감소) 등 소비재제조관련이 악화되었다.

· 『소매』 (38.0)··동 2.2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어 30대로 하락하였다. 「가전·정보기기소매」(35.8, 동 4.9포인트 감소)는 성수기 후의 반동이 보이는 가운데 스마트폰 중 일부 기종(iPhone SE)의 입하지연에 따른 판매기회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소비자의 절약지향, 선별지향이 강해지고 있는 「음식료품소매」(38.9, 동 3.2포인트 감소)는 매입단가가 크게 상승한데다, 판매단가의 저하가 체감경기를 하락시켰다. 또한 「자동차·동 부품소매」(37.2, 동 3.2포인트 감소)는 경자동차를 중심으로 신차판매가 침체된 가운데 중고차시장의 격화된 할인경쟁으로 중고자동차소매가 대폭 악화되었다.

· 『서비스』 (46.8)··동 0.7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오락서비스」(36.8, 동 1.2포인트 감소)는 골프장이나 피트니스클럽 등 스포츠시설제공업이나 오락시설 등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또한 쿠마모토지진에 의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전통여관·호텔」(44.4, 동 6.1포인트 감소)은 1년 전과 비교하여 8.7포인트 감소, 동일본대지진 당시(2011년 3월 12.8포인트 감소) 이래 대폭 악화되어 14개월 만에 50이하로 떨어졌다. 『서비스』는 「음식점」(42.3, 동 0.8포인트 감소) 등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15개 업종 중 13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15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농·임·수산		45.0	41.9	42.9	44.7	44.7	44.6	45.2	46.4	43.6	44.5	42.3	42.4	42.1	▲ 0.3	
금융		47.4	49.2	48.1	46.5	46.3	47.3	46.6	46.3	45.3	44.3	44.8	45.5	44.3	▲ 1.2	
건설		48.6	47.7	48.6	48.8	49.1	49.5	49.6	49.3	47.9	45.9	46.3	45.2	44.9	▲ 0.3	
부동산		49.6	49.1	49.8	48.4	48.7	48.7	48.9	48.4	47.1	48.0	48.2	48.1	48.3	○ 0.2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44.3	43.1	43.4	43.0	43.6	44.3	44.5	44.1	44.2	43.2	44.2	44.6	43.4	▲ 1.2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41.7	39.4	39.4	40.2	38.8	39.8	39.4	39.3	36.4	37.6	39.8	38.2	38.4	○ 0.2	
	간재·가구·오일·토석제품제조	40.9	40.3	41.2	41.2	40.9	40.2	38.9	40.7	38.5	38.0	38.6	37.9	38.3	0.4	
	철강·비철금속·광업	40.0	39.0	39.7	42.0	40.8	41.1	42.4	41.7	40.3	36.8	37.6	40.2	38.6	▲ 1.6	
	종판·인쇄	34.1	33.5	33.7	34.9	34.8	34.8	34.6	34.7	34.0	34.6	35.3	34.1	34.0	▲ 0.1	
	화학제품	44.4	43.9	44.7	45.3	44.4	44.4	44.9	45.4	44.3	42.8	42.7	43.0	42.7	▲ 0.3	
	항공·비철금속·광업	43.0	42.9	43.6	42.8	41.7	41.4	41.8	41.5	41.1	38.8	38.3	38.3	38.1	▲ 0.2	
	기계제조	51.6	51.3	51.9	50.3	47.3	47.9	47.3	48.6	46.0	45.5	45.7	45.3	44.0	▲ 1.3	
	전기기계제조	47.3	47.4	47.4	44.8	45.2	45.2	45.2	44.9	43.0	42.8	42.8	42.3	40.4	▲ 1.9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7.8	49.7	50.9	50.8	48.3	46.3	47.0	46.2	45.7	44.6	46.8	46.8	43.8	▲ 3.0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9.8	49.4	50.4	51.2	47.9	48.6	47.9	46.1	46.2	43.1	44.6	44.6	43.2	▲ 1.4	
	기타 제조	40.7	37.8	39.2	37.7	40.0	39.8	40.0	39.6	39.4	39.1	40.6	37.5	37.8	○ 0.3	
	전체	44.5	44.0	44.6	44.2	43.2	43.3	43.3	43.5	42.2	41.2	41.6	41.3	40.6	▲ 0.7	
도매	식품료품도매	42.9	43.0	44.1	42.7	43.6	43.0	43.1	42.6	41.9	40.9	42.2	42.6	41.0	▲ 1.6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7.0	34.8	34.4	34.7	36.6	37.8	34.4	34.4	33.5	32.7	33.8	35.7	34.6	▲ 1.1	
	간재·가구·오일·토석제품도매	38.7	38.1	39.8	39.7	39.5	41.3	41.5	41.8	40.5	39.1	39.4	39.2	38.4	▲ 0.8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8.1	34.5	37.1	36.5	36.8	36.8	37.4	37.2	38.1	37.4	38.0	36.6	36.7	○ 0.1	
	화학도매	43.0	43.1	43.9	42.6	42.3	42.5	42.8	43.2	40.8	39.2	40.2	39.5	39.4	▲ 0.1	
	재생자원도매	42.3	40.1	35.8	36.0	25.8	29.9	26.7	32.1	25.6	28.4	30.7	39.3	33.3	▲ 6.0	
	항공·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0.3	39.3	40.4	40.3	38.5	38.8	39.4	37.7	36.4	35.8	36.1	35.2	34.6	▲ 0.6	
	기계·기구도매	46.3	45.1	45.6	45.3	43.6	43.6	43.4	43.6	42.6	41.2	41.7	40.9	41.1	○ 0.2	
	기타 도매	41.8	42.0	42.4	41.4	40.8	41.0	41.1	41.1	39.9	39.0	39.6	39.1	38.6	▲ 0.5	
	전체	42.5	41.7	42.5	41.9	41.2	41.5	41.4	41.4	40.1	39.0	39.7	39.4	38.9	▲ 0.5	
	소매	식품료품소매	41.6	42.7	45.0	44.0	44.5	44.6	41.4	43.2	39.9	40.4	43.4	42.1	38.9	▲ 3.2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40.2	37.0	38.6	38.7	36.9	40.1	36.8	32.1	34.8	31.6	33.3	35.1	32.9	▲ 2.2
		약품·의료장비·의료기기소매	48.0	48.6	49.3	48.7	46.7	48.6	50.0	49.4	45.3	45.4	46.1	42.0	41.1	▲ 0.9
가구류소매		40.0	43.3	41.7	41.7	42.9	42.9	42.9	42.9	40.5	40.5	40.5	38.1	42.9	4.8	
가전·정보기기소매		41.5	40.6	38.9	38.3	44.6	39.6	38.7	40.7	43.8	39.2	40.4	40.7	35.8	▲ 4.9	
자동차·동 부품소매		39.9	37.2	38.3	38.7	38.6	39.9	38.2	37.9	40.0	37.9	38.6	40.4	37.2	▲ 3.2	
전문상품소매		40.5	38.0	39.9	41.6	40.7	39.2	39.8	38.4	40.4	39.2	37.4	38.9	37.0	▲ 1.9	
각종상품소매		49.7	48.1	48.8	49.0	47.3	46.5	47.3	43.8	45.0	43.7	44.8	43.3	43.7	0.4	
기타 소매		36.1	43.3	35.7	44.4	44.4	36.1	38.9	43.3	44.4	41.7	44.4	41.7	42.9	1.2	
전체		42.1	40.7	41.9	42.4	42.2	41.6	40.9	40.2	41.0	39.5	40.1	40.2	38.0	▲ 2.2	
운수·창고		44.8	42.6	44.4	44.9	45.1	44.7	45.4	45.3	43.2	41.9	41.9	41.5	41.5	○ 0.0	
서비스		음식점	49.6	48.3	47.4	51.3	45.3	49.2	46.2	44.4	47.1	42.1	43.6	43.1	42.3	▲ 0.8
		전기통신	53.7	50.0	47.0	53.0	59.3	57.6	53.0	51.5	58.3	54.2	50.0	59.1	52.4	▲ 6.7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3.7	53.0	50.0	51.9	56.7	55.0	55.0	55.0	52.4	53.7	50.0	51.9	47.6	▲ 4.3	
	리스·임대	47.9	47.9	48.7	49.9	48.0	48.0	49.2	49.7	48.1	46.2	47.1	45.9	46.7	0.8	
	물칸·호텔	53.1	54.2	59.2	59.0	58.3	61.4	59.1	55.4	56.9	54.7	56.1	50.5	44.4	▲ 6.1	
	오락서비스	40.2	37.9	37.3	38.0	37.9	38.0	38.0	38.6	39.1	37.3	36.9	38.0	36.8	▲ 1.2	
	방송	45.6	46.1	49.1	46.1	41.7	45.1	46.9	47.8	43.8	46.9	45.6	46.7	44.4	▲ 2.3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48.1	47.4	47.6	47.4	46.0	46.1	47.1	46.4	44.8	43.8	43.9	44.4	44.3	▲ 0.1	
	광고관련	41.1	41.0	39.8	40.7	40.8	40.7	40.3	40.3	39.2	37.2	40.9	37.5	36.8	▲ 0.7	
	정보서비스	55.3	55.4	56.4	55.8	55.5	56.0	54.9	54.9	55.2	53.3	53.4	53.4	52.5	▲ 0.9	
	인재파견·소개	56.2	56.3	54.4	55.0	54.2	54.7	52.5	53.1	50.9	52.7	54.7	53.1	52.5	▲ 0.6	
	전문서비스	51.7	50.9	52.0	51.4	51.5	49.9	50.3	52.1	49.1	48.9	49.6	48.3	48.6	○ 0.3	
	의료·복지·보건위생	46.3	43.3	45.3	43.6	42.8	42.3	44.1	42.2	39.9	39.2	42.5	41.5	41.4	▲ 0.1	
교육서비스	41.1	44.4	40.6	44.1	42.1	45.0	50.8	46.7	46.3	46.8	47.4	43.0	42.2	▲ 0.8		
기타 서비스	46.8	49.5	50.9	48.5	49.3	49.2	50.1	49.0	45.9	47.5	47.1	46.7	45.7	▲ 1.0		
전체	49.9	49.7	50.4	50.1	49.6	49.6	49.6	49.6	48.4	47.4	48.2	47.5	46.8	▲ 0.7		
기타		40.2	41.9	42.6	40.7	41.4	42.3	41.9	43.8	40.9	39.4	38.8	37.4	37.5	○ 0.1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7.8	9.0	8.5	8.2	8.4	8.1	8.7	9.4	8.3	9.0	8.5	8.7	10.3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포함,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지난 달에 이어 전 규모에서 악화**

- 「대기업」이 45.7(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이 40.8(동 0.6포인트 감소), 「소규모 기업」이 39.7(동 0.6포인트 감소)이 되어 지난 달에 이어 전규모에서 악화되었다. 『소매』는 모든 규모에서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자동차·동 부품소매」에서는 「대기업」이 동 2.9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에서는 동 3.5포인트 감소되었다. 「대기업」은 10개 업계 중 7개 업계, 「중소기업」은 9개 업계, 「소규모기업」은 8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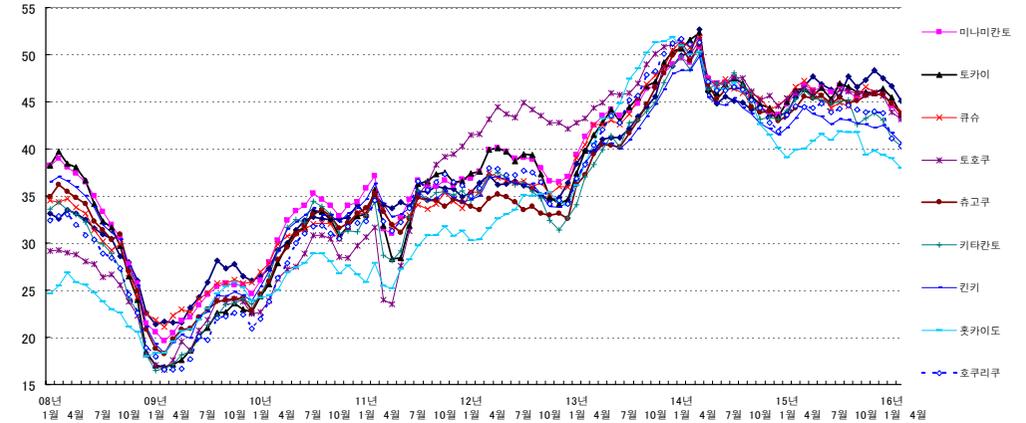
	15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대기업	49.2	48.4	48.8	48.9	48.2	48.4	48.4	47.9	47.1	46.0	46.5	46.2	45.7	▲ 0.5
중소기업	44.3	43.6	44.5	44.1	43.6	43.7	43.7	43.8	42.5	41.3	41.8	41.4	40.8	▲ 0.6
(그 중 소규모기업)	43.2	43.1	43.4	43.2	43.2	43.2	43.1	43.3	41.8	40.3	40.8	40.3	39.7	▲ 0.6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9	4.8	4.3	4.8	4.6	4.7	4.7	4.1	4.6	4.7	4.7	4.8	4.9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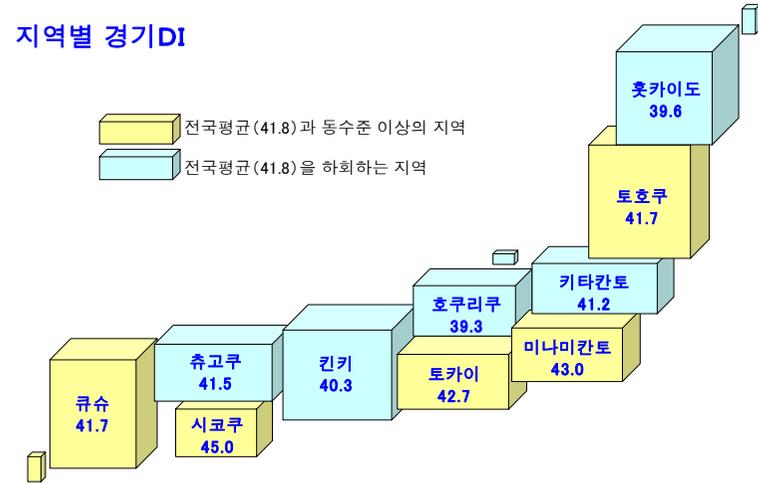
**지역별 : 연비부정 문제로 『츄고쿠』가, 쿠마모토 지진으로 『큐슈』가 악화경향 지속**

- 『홋카이도』 『기타칸토』 『호쿠리쿠』를 제외한 7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특히 대형자동차 제조사의 연비데이터 부정 문제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4.8포인트 감소한 「오카야마」를 포함한 『츄고쿠』, 지진피해로 동 6.8포인트 감소한 「쿠마모토」를 포함한 『큐슈』에서 체감경기가 대폭 악화되었다.
- 『츄고쿠』(41.5)…전월 대비 1.6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대형자동차 제조사의 연비데이터 부정 문제로 경자동차의 생산을 정지한 기업이 속한 「오카야마」가 동 4.8포인트 감소하여 47개 현 중 「쿠마모토」를 잇는 하락폭을 보였다. 지역 내에 동사 그룹의 하청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생산정지를 피할 수 없었으며, 그 영향을 받아 「운송용 기계·기구제조」(동 14.3포인트 감소)를 포함한 『제조』가 동 1.9포인트 감소된 이외에 『운수·창고』가 동 4.9포인트 하락하였다.
- 『큐슈』(41.7)…동 1.7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소매』가 동 8.5포인트 감소하여 크게 하락하였으며, 「섬유·섬유제품·장식품소매」「가전·정보기기소매」「음식료품소매」등 9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하였다. 또한 크게 하락한 「음식점」을 포함한 『서비스』가 4.9포인트 감소하는 등 지진으로 인한 개인활동의 정체가 소비관련업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현 별로 보면 「쿠마모토」가 6.8포인트 감소하여 지역 내 8개 현 중 가장 악화되었으며, 47개 현 중에서는 최대의 악화폭을 나타내었다.
- 『토호쿠』(41.7)…동 1.6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안정을 찾은 지진복구수요나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 내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금업이 악화된 『금융』은 동 13.0포인트 감소하여 과거 최대의 하락폭을 보였다. 또한 「음식료품소매」가 크게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쳐 『소매』가 동 4.8포인트 감소한 이외에, 인력부족이나 화물이동의 정체 등으로 『운수·창고』가 동 4.1포인트 감소하였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5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홋카이도	41.6	40.9	41.8	41.8	41.8	39.3	39.8	39.4	39.0	37.9	38.6	39.2	39.0	▲ 0.2
토호쿠	44.9	45.0	46.3	46.1	45.9	45.8	45.9	45.6	43.9	43.2	43.1	43.3	43.9	0.6
기타칸토	45.2	44.8	45.0	45.2	42.6	43.3	43.8	43.0	41.1	40.3	41.5	40.8	41.1	0.3
미나미칸토	46.5	46.1	46.8	46.1	45.4	45.8	45.8	45.8	44.6	43.2	43.9	43.6	44.6	1.0
호쿠리쿠	44.8	43.8	44.3	44.6	44.2	43.9	43.9	43.8	41.1	40.3	40.4	39.2	41.1	1.9
토카이	46.5	45.3	46.9	46.5	46.0	46.0	45.9	46.4	45.4	43.6	43.6	43.3	45.4	2.1
킨키	43.4	42.6	43.2	43.1	42.7	42.6	42.3	42.5	41.7	40.7	41.1	40.8	41.7	0.9
츄고쿠	45.6	44.8	45.5	44.9	45.0	45.6	45.8	45.8	44.8	43.7	44.3	43.1	44.8	1.7
시코쿠	46.9	46.3	45.6	47.7	46.5	47.3	48.3	47.5	46.7	45.1	45.7	45.2	46.7	1.5
큐슈	45.6	44.3	44.9	44.5	45.7	46.6	46.0	45.6	44.8	44.0	44.3	43.4	44.8	1.4
격차	5.3	5.4	5.1	5.9	4.7	8.0	8.5	8.1	7.7	7.2	7.1	6.0	7.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